

스포츠

배구 좋아 한국 온 홍콩소년, “태극마크가 꿈”

배구부 알렉스 선수

이후승 기자 hooseung.lee@khu.ac.kr

#. ‘경희’라는 이름을 빛내기 위해 맘 흘리는 사람들이 많다. 그들 중 14개 운동부(야구, 축구, 농구, 배구, 핸드볼, 태권도, 배드민턴, 체조, 양궁, 쇼트트랙, 아이스하키, 필드하키, 럭비 골프)의 힘이 대단하다. 우리 신문은 경희를 빛내기 위해 대학이라는 무대에서 묵묵히 노력하는 우리학교 14개 운동부 선수들을 하나하나 만나보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한다. 세 번째 주인공은 대학배구 최고의 블로커, 진 알렉스 지위(체육학2014) 선수다.

지난 3월 22일부터 ‘2018 KUSF U-리그 대학배구’의 막이 올랐다. 작년 리그, 결승의 문턱에서 흥익대를 넘지 못하고 아쉽게 준우승을 거둔 우리학교는 지난 3월 24일, 경남과학기술대와 치른 리그 첫 경기에서 승리하며 쾌조의 스타트를 보였다. 작년 시즌, 준우승이라는 결과도 좋았지만 눈에 띄는 한 선수가 있었다. 세트 평균 0.884 블로킹으로 대학 리그 최고의 블로커라 불리는 진 알렉스 지위(체육학 2014) 선수다.

알렉스 선수의 이름에서 알 수 있듯 그는 한국 국적이 아니다. 알렉스 선수는 홍콩 출신이다. 2013년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홍콩 배구 대표팀으로 참가한 알렉스 선수는 당시 대한민국 배구 대표팀을 지도하던 우리학교 김찬호 감독의 눈에 들었다. 김 감독은 알렉스 선수에게 한국행을 제의했다. 처음에 알렉스 선수는 본인이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다는 것에 놀랐다고 한다. 하지만 배구가 좋았다. 프로리그가 없는 홍콩 대신 오래 배구를 할 수 있는 한국행을 택했다. 캐나다에서도 제의를 받았지만 가까운 한국을 택했고 지금 그 선택에 후회는 없다.

2014년 시작된 우리학교 생활은 쉽지만은 않았다. “첫 해는 우리학교 한국어학당에서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했다”며 “동료들, 코치님, 감독님과는 핸드폰 번역기로 의사소통을 했다”고 했다. 그런 그가 인터뷰에서 구사하는 한국어는 유창했다. “요새는 한국말로 이야기도 잘 하고, 질문도 잘 한다”며 “배구 할 때나 생활 할 때나 아무 문제없다”고 말했다.

문화적으로도 홍콩과 한국은 많이 달랐다. “우선 홍콩과 제일 차이 나는 것은 운동량이다”며 “홍콩에서는 일주일에 두 번



지난 시즌 블로킹 1위를 기록한 알렉스 선수는 올해도 블로킹 1위에 도전한다.

“배구는 내가 살아가는 원동력이자 삶의 전부다. 배구를 안했다면 살아가 수 없었을 것이다.”

만 운동했는데 한국에서는 운동을 매일 해서 처음에는 적응하기 힘들었다”고 말했다. 또한 “홍콩에는 없지만 한국에 있는 선·후배 문화도 낯설었다”며 “지금 4학년인데 선배라기보다는 그냥 동료들과 막역하게 잘 지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홍콩에서는 운동 스케줄이 정해져있었는데 한국에선 항상 갑자기 일어나는 일이 많다”는 그는 “한국에 온지 이틀 쯤, 아침 7시에 동료들이 운동, 운동이라 말하면서 저를 깨웠고 비몽사몽 한 채로 나가서 운동장을 20바퀴 돌았다”는 일화도 소개했다. “러닝을 끝내고 나니 이제는 알람도 맞춰놓고 자야겠다고 느꼈다”고 회상했다.

한국 생활 5년차, 이제는 한국과 한국에 올 기회를 제공해 준 우리학교에 만족하고 있다. “홍콩에서는 카페 같은 곳에 핸드폰을 두고 가면 없어지는데 한국은 그렇지 않다”며 “화장실이 깨끗한 것도 마음에 든다”며 만족감을 나타냈다. 우리학교에 대해 “오기 전에는 벚꽃 말고는 알지 못했는데 이제 경희대 다닌다고 하면 사람들이 놀라는 모습에 좋은 학교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학교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자신이 배구를 더 깊게 배울 수 있게 만들어 줬고 재미있는 학교생활도 하게 해주서 고맙

다”고 말했다. 알렉스 선수는 상대의 공격을 막는 동시에 득점을 기록하는 블로킹에서 대학 선수 최고로 평가받고 있다. 키가 크다는 이유로 시작한 배구였기에 어려서부터 블로킹을 맡아왔다는 알렉스 선수는 “키가 크고 점프력이 평균 이상이다”며 “블로킹 타이밍을 잘 맞추는 능력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자신의 장점을 설명했다. 여기에 “높은 타점의 스파이크를 때릴 때 힘보다는 각도를 더 많이 생각한다”며 “그 균형을 맞추는 것도 자신있다”고 공격에서의 장점을 설명했다. “하지만 체력이 약하고 수비할 때 반응속도가 조금 늦다”며 “단점들을 극복하기 위해 러닝 훈련, 웨이트에 중점을 두고 수비훈련을 개인적으로 많이 한다”고 말했다.

알렉스 선수는 올해 리그에서 ‘아포짓 스파이커(라이트)’ 포지션을 맡고 있다. 주 포지션은 센터지만 라이트 포지션을 맡던 구본승(스포츠지도학 2016) 선수가 학점 미달로 2018학년도 1학기에는 리그에 출전하지 못한다. 그 자리를 라이트를 겸할 수 있는 알렉스 선수가 대신한다. 구 선수가 돌아온다면 알렉스 선수는 다시 센터로 돌아간다. “라이트가 공격하는 재미는 더 있지만 리시브에 대한 부담이 존재한다”며

“리시브 부담도 적고 저의 장기인 블로킹도 더 많이 보여줄 수 있는 센터가 조금 더 편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작년 리그 준우승을 달성한 것에 대해서는 “정신력과 집중력이 조금 흐트러진 부분이 결승전의 패인이라고 생각한다”고 분석했다. “이번 리그에서는 성적에 연연하지 않고 집중력을 높여서 플레이를 할 것이다”고 말하며 “개인적으로 블로킹 1위를 유지하고 싶다”는 목표를 밝혔다. 또한 선수관에서 열리는 홈경기에 대해 “이제 4학년인데 졸업하기 전에 선수관에서 경기를 할 수 있어서 기분이 좋다”고 덧붙였다.

알렉스 선수는 배구를 본인이 살아가는 원동력, 삶의 전부라고 표현했다. “배구를 안 했다면 살아가 수 없었을 것이다”며 배구에 대한 무한 애정을 드러냈다. 또한 타지에서 본인을 응원해주는 가족들에게 “가장 중요한 존재이며 본인이 배구를 더 잘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동기”라며 감사함을 전했다.

알렉스 선수의 최종 목표는 프로배구 리그인 V-리그에 진출하고 국가대표에 발탁돼 세계의 여러 대회에 나가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귀환이 필수적이다. “현재 귀환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에이전트에서 특별귀환 성사를 도와주고 있다”며 현재 상황을 밝혔다. 김정호, 이현우(삼성화재), 손주형(OK 저축은행) 선수 등 프로리그에 진출한 옛 동료들 볼 때마다 알렉스 선수는 본인도 꼭 프로에 진출하고 싶다는 의지를 다진다고 한다.

그를 우리학교와 한국으로 이끌어 준 김찬호 감독에게 “한국말을 잘 하지 못할 때 필요한 거 있으면 항상 도와주셨고 항상 감사하다”는 말을 전했다. 동료들에게는 “어딜 가나 외국인들을 보면 피하는 시선이 존재하는데 우리 동료들은 그런 것 없이 잘 챙겨주고 재밌게 잘 지낼 수 있도록 도와줬다”며 “같이 좋은 경기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 끝으로 우리학교 학생들에게는 “경희대 배구부 응원 많이 해주시고 이제 홈경기도 하니 많이 찾아와서 응원해달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지난 2월, 프로농구에서 외국인 선수였던 리카르도 라틀리프(서울 삼성) 선수가 귀화에 성공했고 대한민국 국가대표에 발탁되어 뛰어난 경기를 펼치기도 했다. 알렉스 선수도 귀화에 성공해 우리학교 배구부, 프로팀 진출과 더불어 태극 마크를 달고 대한민국을 정상에 올려놓는 기분 좋은 상상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

2018년도 대학직장 예비군 기본훈련 안내

- 훈련대상 : 전역 1~6년차 예비군 전원
- 장소 : 금곡예비군훈련장
- 일정

훈련일자	인원(명)	소속
계	2,639	
4. 27(금)	299	교수,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의학/치의학/법학)
5. 1(화)	604	특수대학원(경영/공공/관광/교육/법무/언론정보/평화복지), 경영대학(경영학과/경영학부), 자율전공학과
5. 8(화)	578	정경대학
5. 9(수)	622	생활과학대학, 이과대학, 호텔관광대학
5. 16(수)	533	간호과학대학, 경영대학(회계세무학과), 무용학부, 문과대학, 미술대학, 약학대학, 음악대학,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 훈련 안내는 휴대폰 문자, E-mail, 대학주보, 교내방송, 학교 / 단과대학 홈페이지, 각 행정실 게시판 등으로 공지
※ 훈련 명부는 3. 30(금) 기준이며 이후 편성자는 지정일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 이동방법

- 단체이동
 - 이동수단 : 대형 전세버스 이용 출발 및 복귀
 - 출발장소 / 시간 : 청운관 앞 도로 / 당일 07시50분 출발
- 개별이동
 - 시내버스 : 30분(청량리/휘경동), 23분 / 1~4번(천호동), 93번(강변역)
 - 전철 : 중앙선 도농역 2번 출구 버스중앙차로 정류장에서 위의 버스로 환승
 - 개인차량 : 약도참조

● 참고사항

- 간부 출신 : 7년차 이상, 병 출신 7~8년차, 당해년도 전역자는 미부과
- 훈련장 도착순으로 10명씩 조편성 및 합격제 훈련 / 전과목 합격시 조기퇴소 가능
- 복장(전투복, 전투모, 군화)불량자 결석처리
- 신분증 미소지자 결석처리(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반드시 지참 / 여권, 학생증 기계 인식불가)
- 지각자 귀가조치 - 반드시 08시 50분까지 부대정문 도착

- 교육일정을 반드시 준수해야하며, 부대 1일 수용인원, 버스대수 등의 사유로 일정변경 절대불가
- 결석 및 지각으로 인하여 고발/벌금형 등의 불이익처분에 유의
- 훈련편성(예비군홈페이지에서 확인)이 누락된 예비군은 연대본부로 전화 또는 방문요망
- 기초생활수급권자는 사회복지 급여서비스 및 급여 통지서 서류 제출시 훈련이 면제됨
- 훈련일 기준 휴학 등으로 본인 학적이 재학 중이 아닌 학생은 훈련참석 불가
- 2014년 1월 1일부 수업연한 초과자(졸업유예자) 학생훈련 제외,
- 병무청(동원) 또는 지역 일반훈련 대상
- 중식은 학교에서 지원되지 않으며 부대에서 지급되는 중식비 사용

● 기타

- 기타 문의사항은 청운관 1층 학생생활지원센터 예비군연대본부(☎961-0148-9)로 문의
- 전철 이용 - 중앙선 덕소/용문행 [도농역] 하차 2번 출구 위의 버스로 환승
- 개인차량(내비게이션) 이용 - 경기도 남양주시 이패동 284-1번지 or 금곡훈련장/총알아파트 검색

● 전화번호

- 221연대 : 031-595-8337(교학) 연대동원과 또는 3대대동원과
- 경희대학교 예비군연대본부 : 02-961-0148-9
- ※ 반드시 08시 50분까지 금곡훈련장 부대정문에 도착



경희대학교 서울캠퍼스 예비군연대장

2018학년도 후기 교육대학원 석사과정 신입생 모집

- 원서접수 및 서류제출기간 : 4. 23.(월) ~ 4. 30.(월) 17:00

- 원서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http://www.uwayapply.com>)

● 모집전공

구분	재교육과정	양성과정
서울캠퍼스	교육방법및교육공학, 교육심리, 교육행정, 박물관·미술관교육, 보건교육, 외국어로서의한국어교육	상담심리, 영양교육, 유아교육, 국어교육, 물리교육, 미술교육, 상업교육, 생물교육, 수학교육, 역사교육, 영어교육, 음악교육, 일반사회교육, 화학교육
국제캠퍼스	교사리더십, 초등영어교육, 실용음악교육, 평생교육	수학교육, 영어교육, 중국어교육, 디자인교육, 체육교육, 유아교육

- 지원자격 : 4년제 대학졸업(예정)자 및 동등한 자격이 있는자

- 단, 양성과정의 경우 학부전공과 지원하는 본 대학원 전공이 동일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지원 가능(관련학과 34학점 이상 이수자 및 기본이수과목 3과목(분야) 이상 이수자, 국어교육 2분야 이상, 상업교육 4분야 이상)
- 그 외 전공별 세부 지원자격은 모집요강을 참고

- 전형요소 : 서류, 필기, 면접 등

● 특전

- 경희대학교 졸업생의 경우 동문 장학금 지급
- 양성과정의 경우 중등학교정교사(2급) 자격증 취득

● 문의처

- 서울캠퍼스 : 02-961-0135-6
- 국제캠퍼스 : 031-201-2021-2
- 홈페이지 <http://edu.khu.ac.kr>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